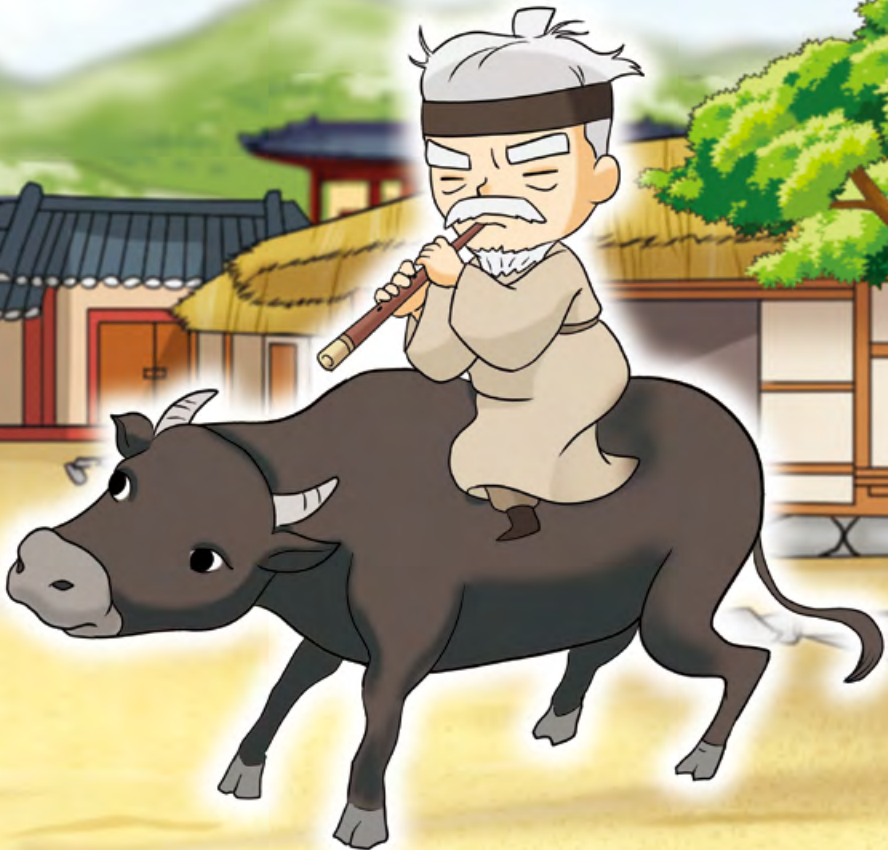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피리 부는 정승 **맹사성**

원저자 장미숙 그림 이대종





온양문화원 연혁

- 2015. 05. 22. 정종호 원장 제8대 온양문화원장 취임
- 2015. 03. 31. 이만우 원장 제7대 온양문화원장 사임
- 2011. 12. 20. 이만우 원장 제7대 온양문화원장 취임
- 2011. 03. 11. 김시겸 원장 제6대 온양문화원장 퇴임
- 2010. 07. 01. 김시겸 원장 제6대 온양문화원장 연임
- 2006. 07. 10. 김시겸 원장 제5대 온양문화원장 취임
- 1997. 07. 10. 최우수 문화원 선정
- 1994. 06. 30.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 취득
- 1993. 06. 13.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받음
- 1993. 05. 08. 그 동안 6개 처의 원사를 전전궁궁하다
현 원사로 신축이전
- 1958년 2월 원장 개인소유 원사일부를 기부.
당시 시가 38,000,000원. 아산군수에게 기부체납
하여 신축원사를 건립하기로 합의, 현 원사를
신축하였음.
- 1964. 12. 24. 공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인가 받음
- 1964. 08. 26.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에 의한 법인 조직
- 1957. 05. 10. 온양읍 온천리 57번지에서 개원
- 1957. 04. 02. 온양문화원 운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1957. 03. 20. 전 박노을 원장이 운영하던 무료 직업
소년학교를 모체로 동교를 발전적 해체
하고 19명의 발기인회를 구성, 87명의
운영위원 선정, 온양문화원을 창설

피리 부는 정승 **맹사성**

 온양문화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원저자 **장미숙**

- 시인, 수필가
-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외래교수
- 온양문화원 부원장
- 온양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 주요저서 <피리부는 정승 맹사성>, 시집 <사랑의 미학>

그림 **이대종**

2007년부터 교양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만화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수학 삼국지>, <카툰 영어>, <카툰 국사>,

<만화 데카르트 방법서설>, <Who? 김옥균>,

<SOS 과학구조대 황사의 습격에서 지구를 구하라> 등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정승 **맹사성**



사진으로 보는 고불 맹사성의 발자취



고불 맹사성 동상과 시조비 _ 아산시청 앞



맹씨 고택 _ 아산시 배방읍 중리



세덕사 _ 아산시 배방읍 중리



쌍행수 _ 아산시 배방읍 중리

사진으로 보는 고불 맹사성의 발자취



구괴정_아산시 배방읍 중리



강호사시가 시조비·장려_아산시 배방읍 중리



유물기념관 입구 _ 아산시 배방읍 중리



신창맹씨 세거지비 _ 아산시 배방읍 중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온양문화원장 정 종 호

예로부터 우리고장 아산은 충·효의 정신이 드높은 고장으로써 충신과 효자·효부가 많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충과 효는 지나간 역사의 흔적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정신 문화의 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온양문화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많은 충신과 효자·효부들 중에 청백리의 상징 고불 맹사성의 일대기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단편만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온양문화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숨어 있는 역사 인물들을 발굴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리 부는 정승 **맹사성**

차 례



사진으로 보는 고불 맹사성의 발자취	4
---------------------------	---

인 사 말	8
-------------	---

1장 아산의 위인 고불 맹사성	11
2장 치마폭으로 태양을 받은 태몽	25
3장 최영 장군의 손녀사위가 된 맹사성	39
4장 어린 맹사성의 시묘 살이	53
5장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맹사성	63
6장 향약의 전문가 맹사성	75
7장 북방영토를 개척한 세종대왕과 맹사성	87
8장 평생 녹미만으로 생활한 맹사성	99
9장 태종실록 편찬	109
10장 세종대왕에게 궤장을 하사받다	119

부 록	141
-----------	-----

피리 부는 정승 맹사성 등장인물

고불 맹사성



유년



중년



노년



아랑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조금은 엉뚱한 아이. 삼촌을 따라다니며 맹사성에 대해 익히고 배운다.

초록

독서와 공부를 좋아하는 귀여운 아이. 아랑이와 함께 맹사성에 대해 알아간다.



삼촌

아랑의 삼촌으로 한국사연구소에서 일하는 한국사 전문 강사. 한국사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 아랑과 초록에게 맹사성에 대해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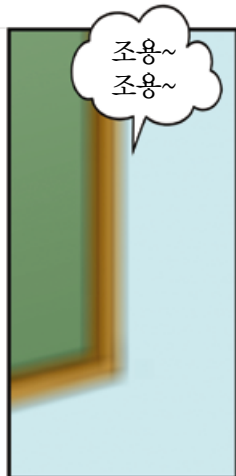


1장

아산의 위인 고불 맹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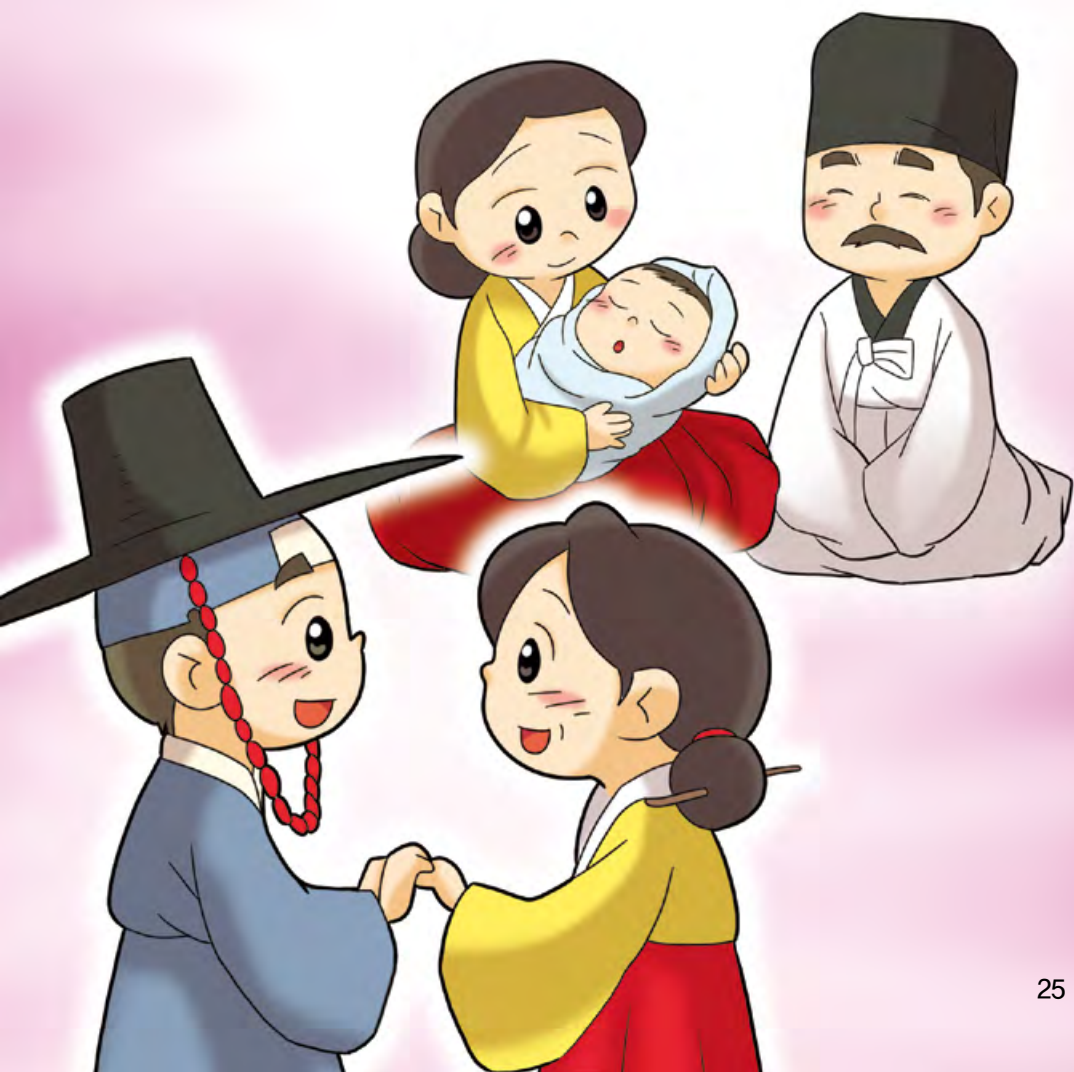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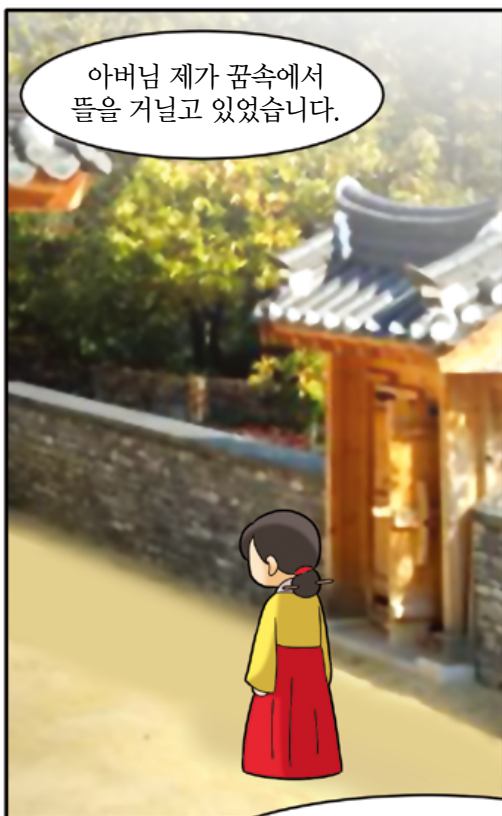
치마폭으로 태양을 받은 태몽







아버님 제가 꿈속에서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응?



뜰을 거닐다가 하늘을 올라다 보는데
갑자기 태양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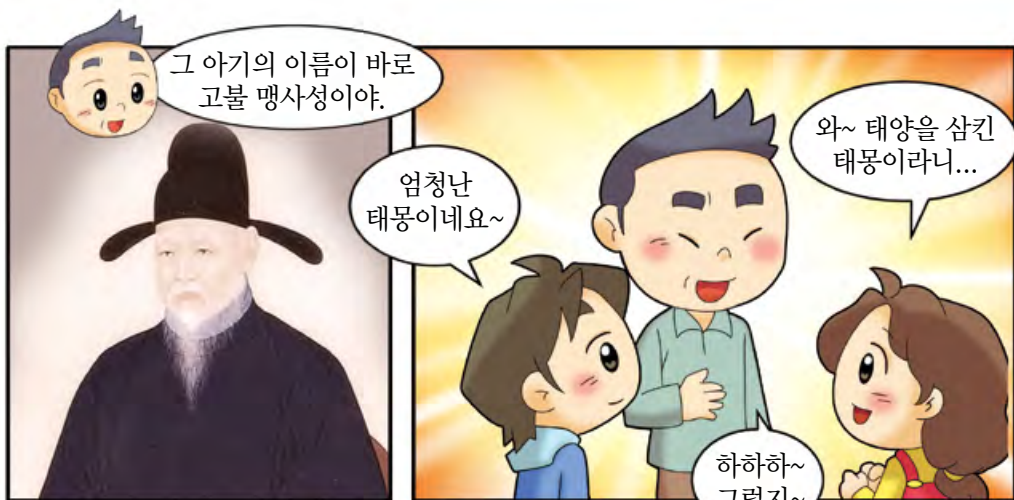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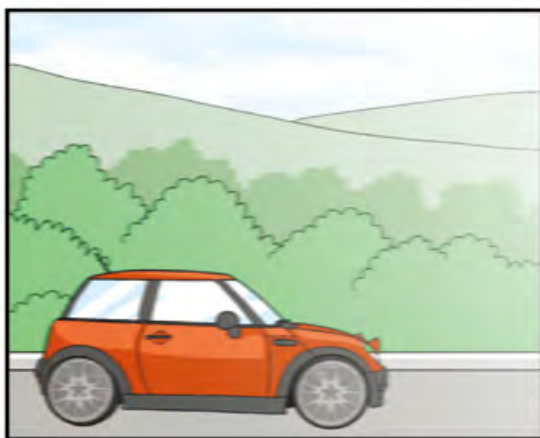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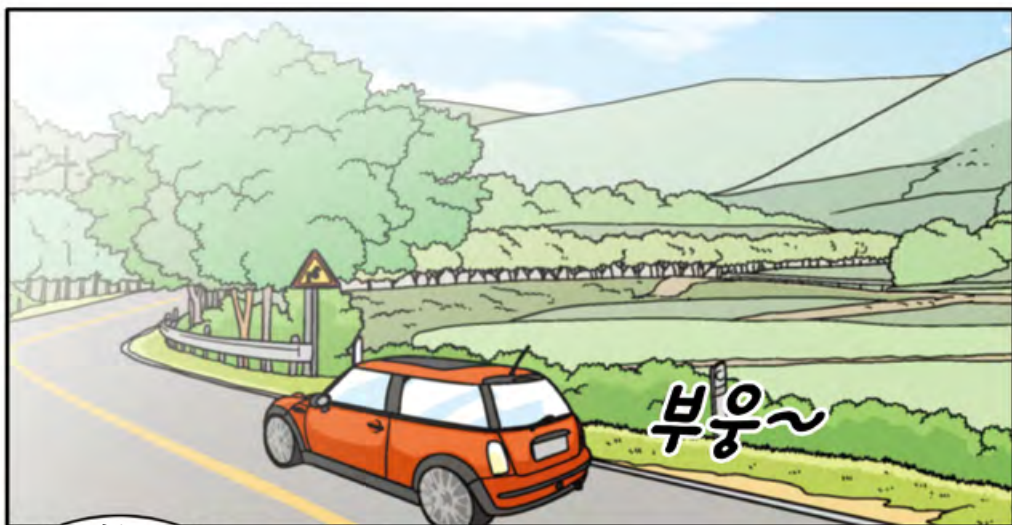




3장

최영 장군의 손녀사위가 될 맹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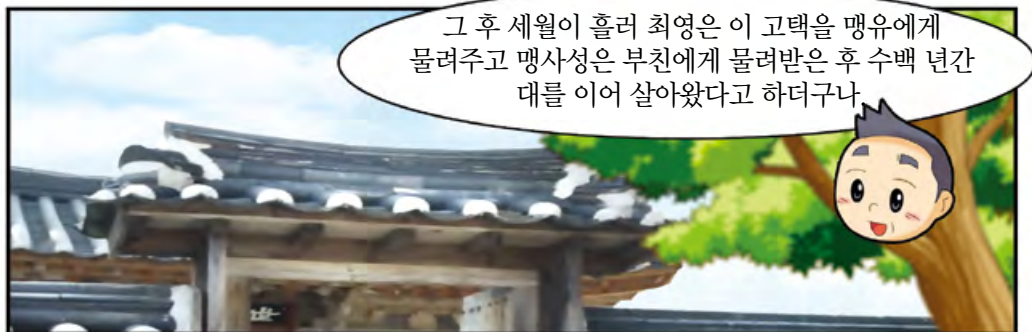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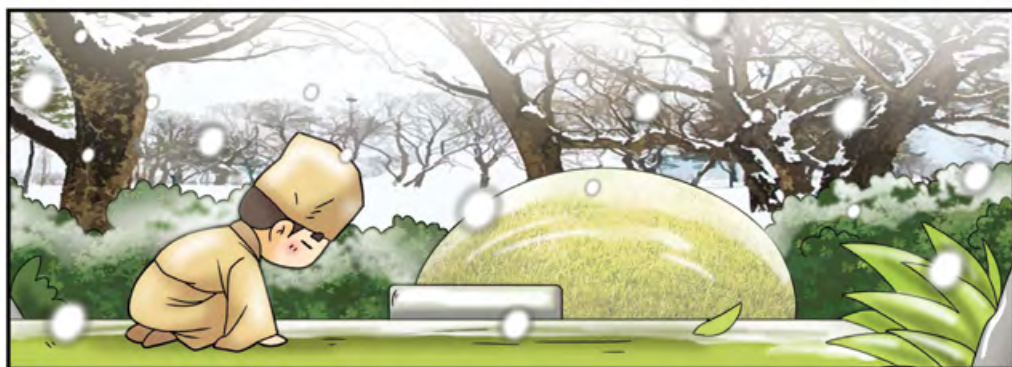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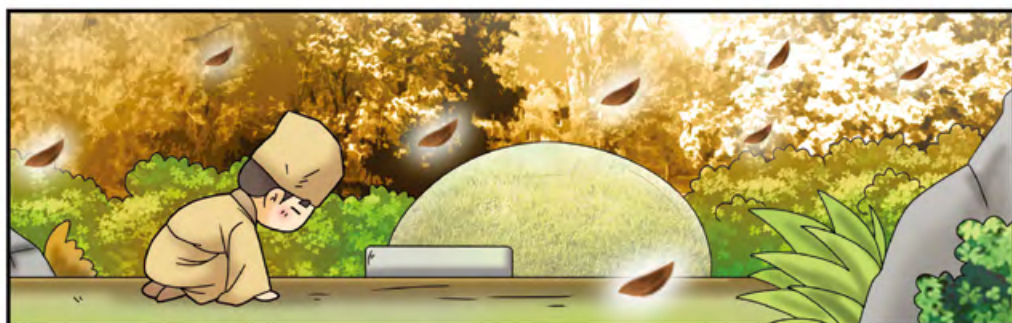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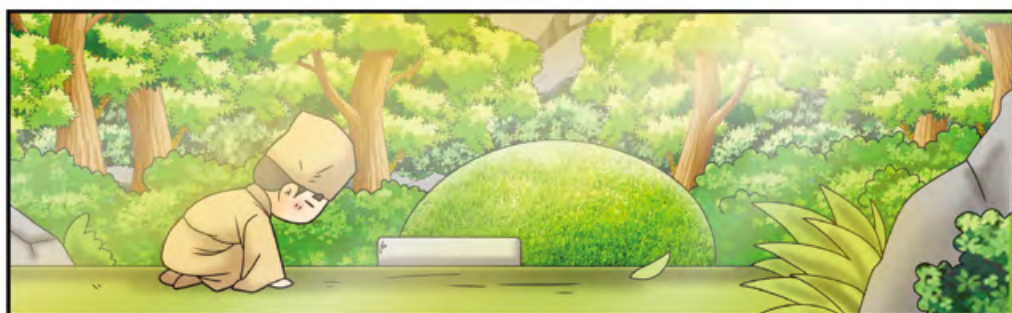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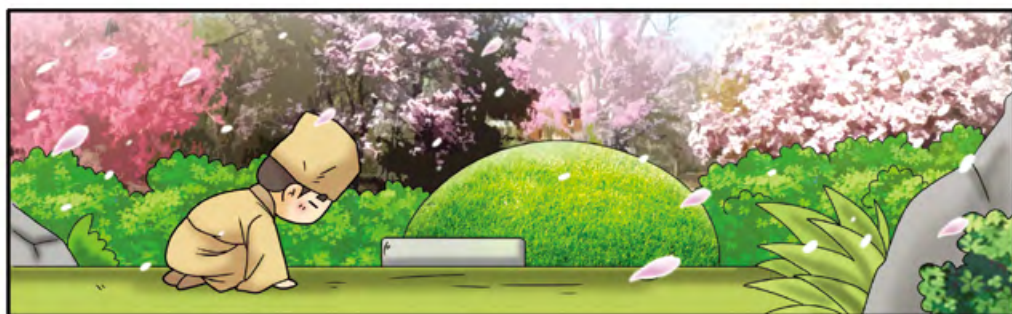
어린 맹사청의 시묘 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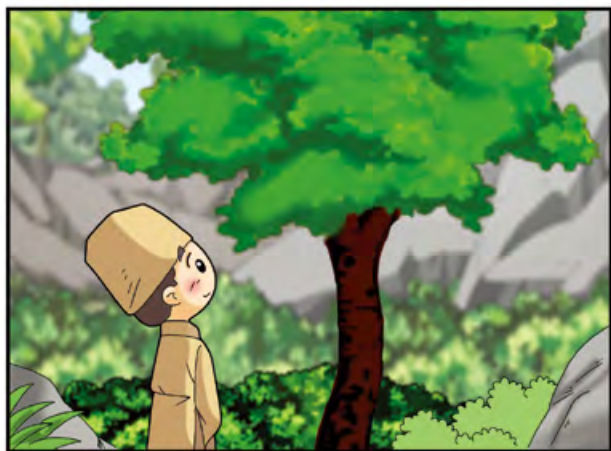














그때였어. 어디선가
사나운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어.

크하하!



크르릉

파팍!

저벅

저벅

파팍!

웬 호랑이지...?

후!

팍!

와와와!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호랑이가
맹사성의 잣나무를
지켜 준 거네요?

맹사성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호랑이를
보내준 것일까?

호호~
그럴 수도
있겠어요~



5장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맹사청

























6장

향악의 권문가 맹사성

























7장

북방영토를 개척한
세종대왕과 맹사성















다시 한 번 말하겠소!
북방의 옛 영토를 반드시 다시
찾을 것이며 여진족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노략질을 하는 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소이다!



세종과 신하들의
갑론을박을 듣고 있던 맹사성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



전하, 우리의 옛 영토를 되찾고
여진인들을 몰아내는 것은 실로
타당한 일입니다!



신이 최윤덕과 함께
토벌대를 구성하여 야인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겠나이다!









또한 이 모든 일은
전장의 제일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최윤덕 장군의 공이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8장

평생 녹미만으로 생활한
맹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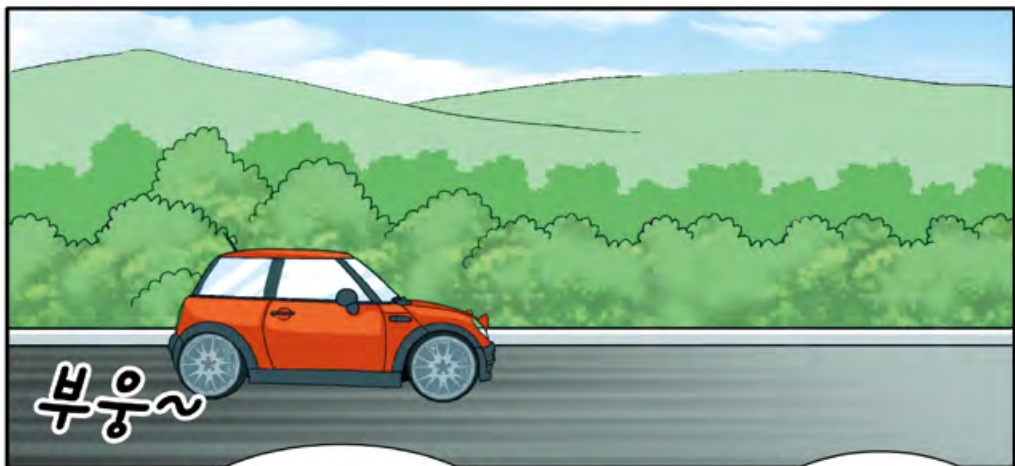




9장

태종실록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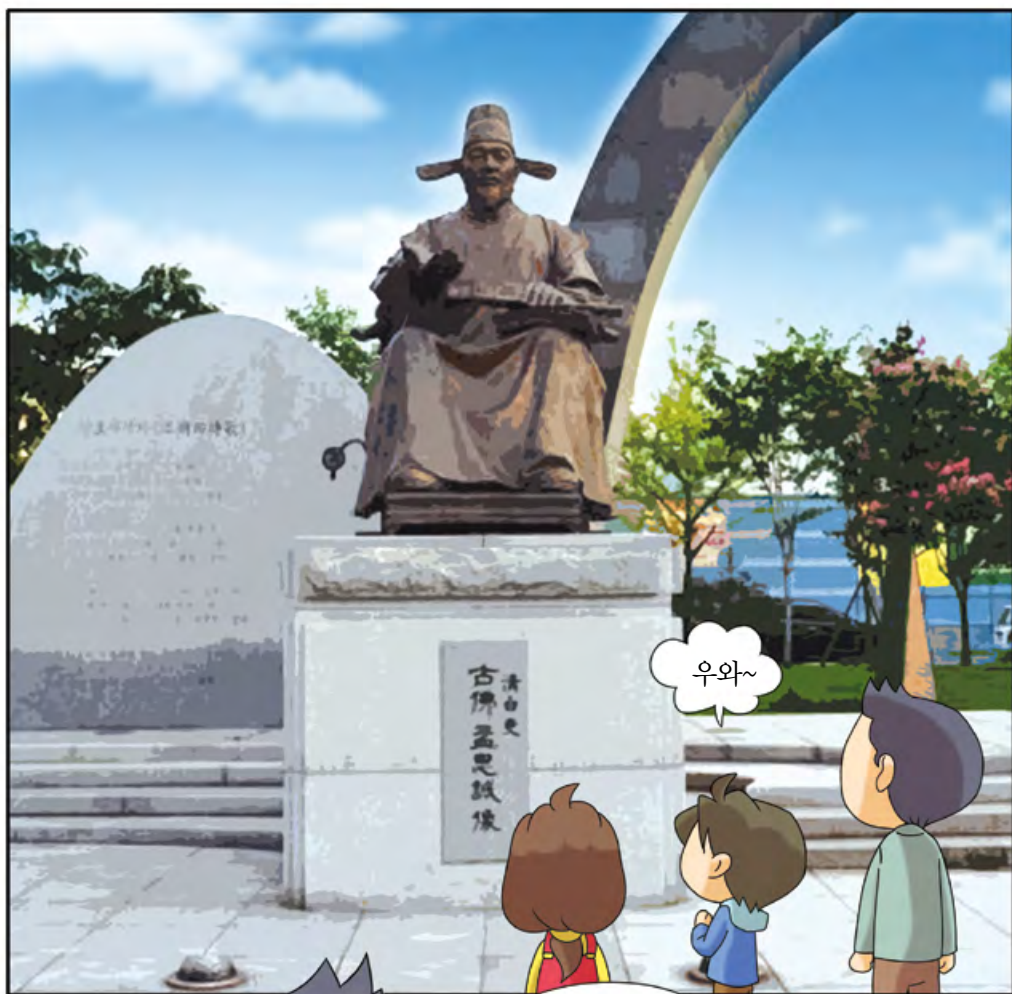


10장

세종대왕에게 궤장을 하사받다







맹사성이 정승으로 지내면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은 국가의 주권을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확립하여 평화와 안정을 이룬 거야.



명나라와의 성공적인 외교로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자주적인 조선만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했어.





1429년(세종11년)







맹사성은 겸손하면서도
공순하고 온화하면서도 올바른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자이다.

조종을 잘 섬기며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모든 관원의
모범이 되어 나라를 돌보았다.

이와 같이 덕이 높으니
궐장을 내림이 마땅하며
더욱 나라를 위해 마음을
쓰도록 하여라.









그 후 맹사성은 6년간 더 세종을 모시고 좌의정으로 조정일을 수행하다
76세에 더 이상은 조정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고향인 온양에 내려갔어.



그 이후 맹사성은
한가롭게 정원에서
피리를 불고...



시를 짓기도 하고 낚시를
하며 여생을 보냈어.





사계절을 노래한 시로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신이 자연과 함께 삶을 즐기는 것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



강호사시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 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몸이 한가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느니 바람이다.
이몸이 서늘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타슬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시러, 훌리 띄여 더더 두고,
이몸이 소일(消日)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차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야,
이몸이 침지 아니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세종대왕은 맹사청에게 문정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이것은 충성과 믿음으로 사람을 대함이 있어서 예를 갖추며,
청백리로서 후세에 존경을 받을만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문정이라는 시호를 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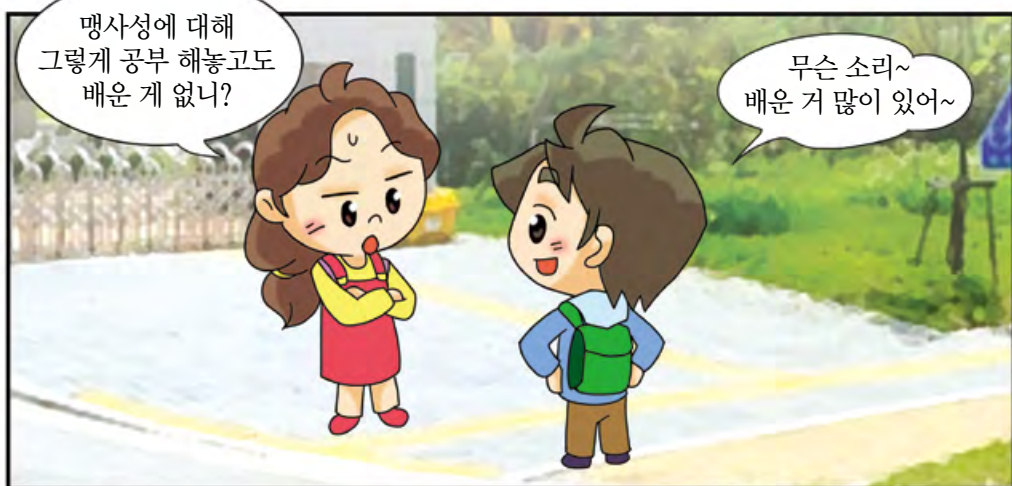
이렇듯 맹사성은
조선의 대표적인 재상으로서,
소박한 성격과 청빈한 생활로
세종대왕이 아꼈던 신하 중
한명입니다.



그리고, 맹사성은
소를 타는 정승으로도 유명했는데,
벼슬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을
대동하는 가마를 타지 않고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출근했다고 합니다.







맹사성이 말년에
세종대왕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궐장도 선물 받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배운 게
뭔데?

선물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거?
헤헤~

판~

판~

상장

으이구~
이럴 줄 알았다~
알았어~

상장

나 먼저
집에 간다~

가...
같이 가~
초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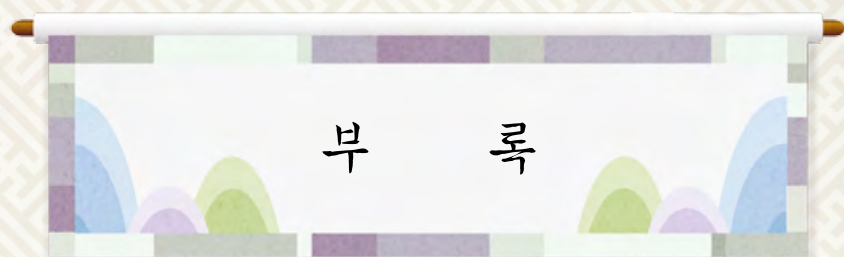








고불 맹사성 동상





1.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에 금린어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해옴도 역군은이샷다

강호에 녀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업다
 유신한 강파난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날해옴도 역군은이샷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잇다
 소정에 그믐 시러 홀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소일해옴도 역군은이샷다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해옴도 역군은이샷다

2. 현대어로 풀어본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강호에 봄이 찾아드니 참을 수 없는 흥취가 저절로 난다
막걸리 마시며 시냇가에서 잡은 물고기가 안주로 좋구나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

강호에 여름이 찾아드니 별채에서 할 일이 없다
더위를 잊게 해 주는 강 물결은 시원한 바람을 보낸다
이 몸이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

강호에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이 썩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신고 물결 흐르는 대로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세월을 재미있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

강호에 겨울이 찾아드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입으니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

3. 강호사시가 해설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강호사시가’는 맹사성이 남긴 시가(詩歌)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맹사성이 나이가 많아져 더 이상 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강호사시가 시조비 _ 아산시 배방읍 중리

1435년 76세에 좌의정을 끝으로 벼슬을 사양하고 온양으로 내려와 전원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이다.

‘강호사시가’는 전원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왕과 일치시켜 노래했다. 사계절을 보내면서 현재 자신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모두가 임금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을 노래한 시로 역군은(임금의 은혜) 이 시의 핵심이다.



맹씨 행단



맹씨행단(孟氏杏壇)은 사적 제109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중리에 위치하고 있다. 아산맹씨행단은 아산 시내에서 온천동을 거친 뒤 좌부동을 지나 6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다.

아산맹씨행단 내에는 맹사성 정승이 심은 600여 년 된 은행나무와 고택이 있는데, 이 건물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민가이다. 고택 뒤에는 맹 정승과 그의 부친인 희도, 조부 유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으로 세덕사가 있다.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어서 행단이라 부른 것으로 추정하나, 공부하던 자리의 의미인 행단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위키백과〉

- 맹씨행단 문화재 사적 제109호 지정
- 문화재 지정일 : 1963년 1월 21일

맹씨 고택 _ 아산시 배방읍 중리



쌍행수 _ 아산시 배방읍 중리(고택 앞)





1. 맹사성(孟思誠, 1360~1438년)

조선 세종대왕 때 향약의 권위자, 청백리로 이름 높은 명재상 맹사성 선생은 1360년(고려 공민왕 9년) 지금의 개성 근교 농촌에서 아버지 맹희도(孟希道)와 어머니 홍양 조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5세에서 10세 사이에 한산을 거쳐 지금의 아산시 배방면 중리(행단)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10세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7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어머니를 추모하며 3년 동안 묘막생활을 하였다. 27세의 젊은 나이로 선생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춘추관검열이 된 데 이어 전의시승, 기거랑, 우헌납 등의 벼슬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42세 되던 해에는 공주목사가 되었고 47세에 이조참의에 임명되었다. 1407년에는 예문관제학으로 있으면서 세자(양녕대군)의 스승이 되기도 하였고 1412년 풍해도(황해도) 도관찰사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하륜이 악보에 밝은 선생을 서울에 머물러 악공을 가르치도록 아뢰어 그대로 시행되는 등 음악의 천재적 소질을 인정받아 박연과 함께 조선 초기 음악을 정리하였다.

1416년 이조참판과 예조판서가 되었고 1417년에는 아버지의 병환이 중해지자 세종이 선생을 충청도 도관찰사로 임명, 부친을 간호케 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친히 약까지 지어주기도 하였다. 1418년 부친상을 당하자 나라에서는 효자정문을 세우고, 한신축동에 효자비를 세웠다.

1419년 세종대왕이 즉위하면서 유능한 관리등용을 위하여 사심이 없고 청렴한 선생을 이조판서에 임명하여 인재등용을 꾀하였다.

1425년에는 문신으로는 최초로 삼군도진무가 되었다. 1427년 나이 68세에 우의정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에 간신들의 상소로 오해를 받아 우의정 직을 파면 당하였다가 혐의가 풀려 다시 우의정 자리를 되찾는 일도 있었다.

1431년에는 좌의정으로 임명되었으며 1435년에는 늙어서 국사와 왕을 모시는 일을 못 하겠다고 간청하여 좌의정과 모든 부직을 그만 두었고, 1438년 나이 79세로 서거하였다. 장례 때 세종대왕은 모든 국정을 중단하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거행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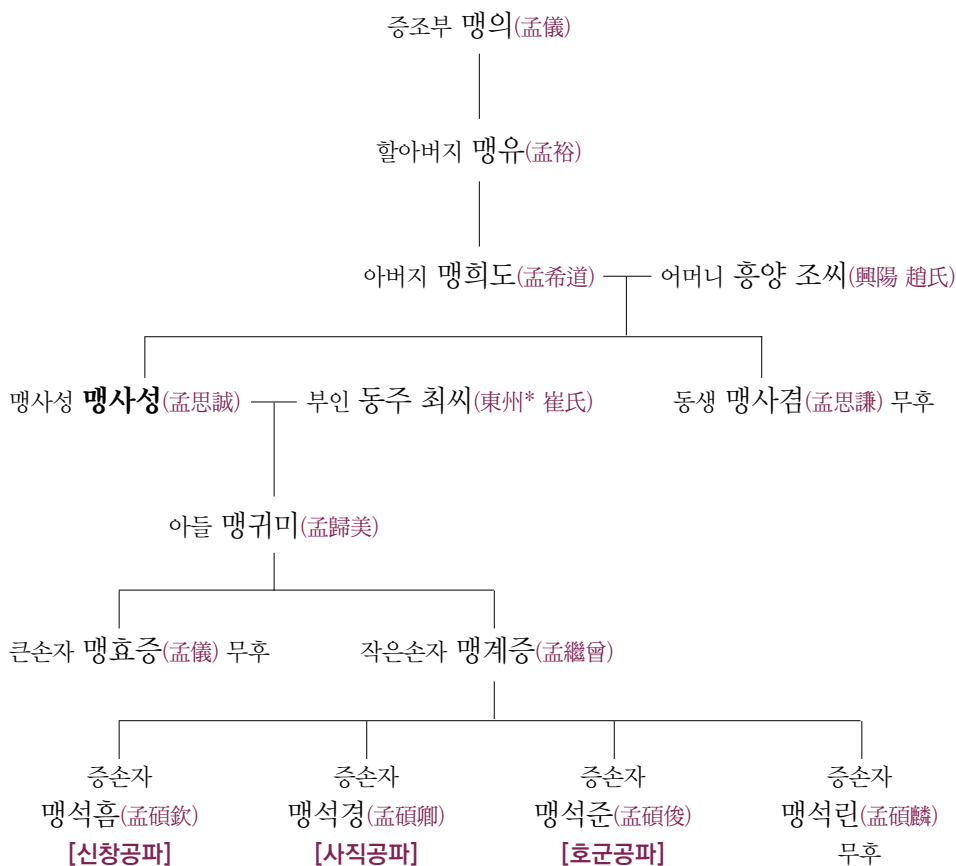
선생은 『태종실록』, 『고려사』, 『팔도지리지』, 『신창경제육전』 등을 완성하였으며 근천장가사를 개수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향악의 권위자로서 조선 초기 우리 음악의 기초를 닦았으며 평생을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았다.

이러한 선생의 지극한 효성과 청백리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바가 크며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맹사성의 가계도



*東州 = 鐵原



고불 맹사성 연보



- 1360년(고려 공민왕 9년) : 1세
7월 17일 개경(지금의 개성)에서 아버지 맹희도와 어머니 홍양 조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
- 1364년(공민왕 13년) : 5세
최영 장군의 배나무에 올라간 일로 인연을 맺음.
- 1365년(공민왕 14년) : 6세
아버지 맹희도가 문과에 급제함.
- 1369년(공민왕 18년) : 10세
어머니 별세, 3년간의 시모로 나라에서 효자정려가 내려졌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사성효감’에 수록됨.
- 1376년(우왕 2년) : 17세
문과 초시 제술과에 합격하여 진사가 됨.
- 1380년(우왕 6년) : 21세
문과 초시 명경과에 합격하여 생원이 됨.
- 1386년(우왕 12년) : 27세
문과 전시에 장원급제함.
- 1388년(우왕 14년) : 29세
처조부 최영 장군이 공료죄(요동을 공격한 죄)로 참수형을 당함.
- 1392년(태조 1년) : 33세
이성계에 의해 조선왕조가 건국됨
- 1398년(태조 7년) : 39세
이방원에 의해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남.
태조가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양위함.
- 1399년(정종 1년) : 40세
우간의대부로 임명됨
- 1400년(정종 2년) : 41세
이방원에 의해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남.
정종이 방원에게 왕위를 양위함.

- 1406년(태종 6년) : 47세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참의에 제수됨.
- 1407년(태종 7년) : 48세
세자 양녕대군을 모시고 명나라에 다녀옴.
- 1408년(태종 8년) : 49세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됨.
- 1410년(태종 10년) : 51세
아들 귀미가 태형과 구금의 여독으로 사망함.
- 1416년(태종 16년) : 57세
이조참판에 제수된 후 예조판서에 제수됨.
- 1418년(세종 즉위) : 59세
태종의 선양으로 세종이 즉위함.
- 1421년(세종 3년) : 62세
의정부 찬성사에 제수됨.
- 1425년(세종 7년) : 66세
의정부 우의정에 제수됨.
- 1431년(세종 13년) : 72세
『태종실록』완성, 의정부 좌의정에 제수됨.
- 1435년(세종 17년) : 76세
노령으로 좌의정과 모든 부직을 치사함.
- 1438년(세종 20년) : 79세
79세의 일기로 별세.
세종의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거애(學哀)하고 조회를 정지시킴.
세종이 문정(文貞)으로 시호를 정하여 내려줌.



참 고 문 헌



- 장미숙, 『피리 부는 정승 맹사성』, 온양문화원, 2015
- 김기승, 『고불 맹사성의 생애와 사상』, 고불맹사성기념사업회, 2014
- 김현수, 「맹사성의 풍수관과 사례지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 대학원 석사논문, 2005
- 맹온재, 『고불 맹사성 전기』, 온양문화원, 1999
-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 홍순석·이인영, 『내 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 1985
『신창맹씨 대동보 총편』, 신창맹씨대종회, 2007
『안동의 지명유래』, 안동민속박물관, 2002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피리 부는 정승 맹사성

© 온양문화원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17

발행일 2018년 1월

발행인 김한국

발행처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기획 온양문화원

원저자 장미숙

그림 이대중

인쇄사 한솔에드텍

비매품

ISBN 979-11-962803-9-0 05090

*이 책은 「한국문화원연합회_2017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피리 부는 정승 맹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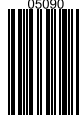
비매품

05080



9 791196 280390

ISBN 979-11-962803-9-0



(PDF)